

---

# 알팔파를 이용한 고능력우 시대

태신농장  
대표 김 태 신

오랫동안 알팔파 수입에 대해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찬, 반의 의견이 팽팽히 줄다름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알팔파가 금년에 1만톤 범위내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은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는 축산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알팔파의 수입이 확정된 이때 더 이상 수입개방 여부에 대해 토를 단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 양축가들이 하여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입될 알팔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본인은 1984년 4월에 약5정보의 초지에 100kg의 알팔파를 심었고 그 이듬해인 1985년 9월에 15정보의 초지에 400kg 정도의 알팔파를 추가 파종하여 현재는 총 20정보의 초지를 알팔파 재배 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 한해에 생산된 양을 보면 1차 예취시는 4월 말경에 186톤, 2차 예취시는 8월초에 230톤, 3차예취시는 9월초에 102.5톤 그리고 마지막 예취는 10월 말경에 71.5톤으로 총 590톤(1정당 29.5톤)의 알팔파 청초를 생산하여 사일리지로 이용하고 있다. 본인도 알팔파는 건초로 이용시 그 이용 효율이 가장 좋음을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즉, 기후상태와 조단백질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옻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구입하여야할 농기계의 추가 구입비등 건초로 제조하는 것 보다는 알팔파에 다른 첨가물을 사용해 대부분을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소량은 건초를 제조해 급여시키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생산해낸 양으로 알팔파 재배의 적당성 여부를 평가해 볼때 그 초지에 옥수수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토지의 생산성이 훨씬 높음을 쉽게 알 수 있리라 생각된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알팔파를 재배한 이유는 모든 것소에 대해 급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능력우(년간 산유량 6,000kg 이상)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고능력우의 경우에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

그에 응당하는 영양적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농후사료의 양도 늘려 줄수 있지만 그양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농후사료가 아닌 조사료로그 영양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하지만 고능력우의 경우 건물 성취량은 제한 되어있고 양질의 조사료가 아닌 저질 조사료를 급여시 충분한 영양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그 능력발휘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양축가들이 다들 그렇듯이 년산유량이 5,000 kg에서 6,000kg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우군 개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렇게 되었을때 저능력우를 키우던 시절과 같은 조사료를 급여하여서는 도저히 고능력우를 사육할수 없으며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초지면적이 협소한 우리 실정에서 토지 생산성을 저하시키면서 까지 알팔파를 재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이번에 취해진 양질의 조사료인 알팔파 펠렛 수입은 다가올 고능력우 시대에 대비해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비싼 외화를 주고 사들여온 알팔파 펠렛 (또는 큐브)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까? 우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하였을때를 생각해 보자. 금년도 총 배합사료 생산량 762만 톤에 1만톤의 알팔파를 첨가하여 사용시 첫째 비싼 원료의 혼합으로 사료 단가를 올림으로써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모든 양축가에게 부담을 지울것이고 둘째, 비싼 외화를 주고 사들여온 것을 배합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저능력우나 고능력우 할것없이 모든 가축에 급여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는 명약관화할 사실이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수입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여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비싼 외화를 주고 사온 알팔파 (또는큐브)를 실수요자(양축가)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실수요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싼 알팔파 펠렛 (또는 큐브)을 모든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고 필요한 가축 (고능력우)에게만 급여시킴으로써 그 효과도 100%기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알팔파 수입을 100%개방한다 해도 그 수요가 많지 않아 외화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됨으로써 다가올 고능력우 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입된 알팔파 펠렛 (또는큐브)도 효율적으로 이용될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